

『자기만의 방』과 『여인무사』를 통해 본 「물란」의 여성 주체 번역 실천

: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 번역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의 가능성

조현준*

차례

1. 보편성과 특수성
2.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 번역: 경쟁하는 보편성과 수행적 모순
3. 『자기만의 방』과 『여인 무사』에 나타난 돈과 방: 경쟁하는 보편성
4. 『여인 무사』와 「물란」에 나타난 돈과 방: 수행적 모순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버틀러의 문화번역에 나오는 ‘경쟁하는 보편성’과 ‘수행적 모순’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영국 여성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1929)과 중국계 미국 여성작가 맥신 홍 킹스턴의 『여인 무사』(1976)을 경유해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1998)에 나타난 보편 여성 주체에 대한 문화번역의 정치성과 윤리성의 접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울프가 여성 해방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돈’과 ‘방’의 의미를 중심으로 근대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인권에 관한 보편적 주장의 의미와 힘이 형성되는 이 세 텍스트의 수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버틀러의 문화 번역 논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우선 보편성에 대한 어떤 주장도 문화적 규범과 별개로 발생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장을 구성하는 경쟁하는 규범들의 배열을 생각한다면 그 즉시 문화번역을 요구하지 않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고는 보편성 주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경쟁하는 보편성’에 대한 번역 없이 보편성의 개념 자체가 자신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언어적, 문화적 경계를 넘을 수 없다. 경쟁하며 중첩되는 보편주의를 판정하고 구성하는 가운데 다문화주의의 정치성은 번역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특수성의 보편성으로의 동화는 그 흔적, 즉 동화불가능한 잔여물을 남기는데 이것이 보편성을 스스로에게 유령적이게 만든다. 문화번역의 과제는 바로 이런 보편성안의 유령 같은 특수성이라는 ‘수행적 모순’을 필요로 하며 내부에서 보편자로 말할 권한이 없지만 그 용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다. 번역이 헤게모니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배제되고 주변화된 이들이 지배담론 안에서 보편성을 주장하고 지배 담론이 외래 어휘를 자국어 사전에 수용하면서 지배 담론 자체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기만의 방』과 『여인 무사』를 통해 물란 에 재현된 ‘돈’과 ‘방’의 변화된 문화 번역은 ‘경쟁하는 보편성’과 ‘수행적 모순’의 관점에서 정치학과 윤리학을 연결할 가능성을 밝힐 수 있다. 버틀러의 문화번역은 창의적 틈새와 격렬한 운동으로 경쟁하는 보편성을 다시 무대화하여 규제적 규범과 법을 수행적으로 재의미화하고 재발화할 수 있다. 번역의 틈새는 나의 외부에 있는 것과의 접촉, 즉 탈아적 관계성의 매개이자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만나 타자와의 접촉이 발생하는 윤리적 장면이다.

핵심어 : 『자기만의 방』, 『여인 무사』, 『물란』, 주디스 버틀러, 문화 번역, 경쟁하는 보편성, 수행적 모순, 탈아적 관계성

1. 보편성과 특수성

근대적 개인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다. 로베르 르그로(Robert Legros)는 근대를 통한 개인의 탄생이 역설적이게도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전근대 시대의 신

분적 위계질서와 태생적 소속관계에서 해방되면서 ‘보편적 평등’의 유사성이나 상동성이 중시되었지만, 그 평등한 개인 각각이 ‘개별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정체성과 독립적 자율성도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주체는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기이한 융합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주체 자체는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구성된다. 18세기 보편론적 인간의 권리를 주창한 『미국 독립 선언서』(1776)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있다”거나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한다”고 선언할 때, 그 모든 인간에는 선언국의 여성뿐 아니라 식민지의 유색인종, 아메리카 원주민과 흑인 노예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편적 선언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당대의 특수한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문화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보편 선언문에 대한 번역이 필요하다. 보편적 주장의 순수성을 과열해서, 보편에 보이지 않게 달라붙어 있는 특수의 유령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보편성의 주장은 언제나 주어진 구문 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 장소안의 일련의 문화적 관습을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모든 보편성의 주장은 문화적 규범과 별개로 발생할 수가 없으며, 보편성의 주장은 국제적인 장을 구성하는 경쟁하는 규범들 속에 있기 때문에 ‘문화 번역(cultural translation)’을 요구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¹⁾ 보편성의 주장이 제대로 작동하여 합의를 끌어내고 그것이 선언하는 보편성을 수행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주장의 의미와 힘이 형성되는 여러 수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속으로 번역이 일어나야 한다. 어떠한 예외도 없는 절대적 보편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놓인 보편이 그 선언의 실천과 수행적 효과를 통해 보편적 진리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1) Judith Butler, "Restaging the Universal,"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 on the Left* (London: Verso, 2000), p35.

18세기 말 보편론적 인권선언의 ‘모든 인간’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관점에서 그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속의 보편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영국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1929)은 여성에게 연간 5백 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다면 백년 뒤 여성은 독립적 기반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고, 중국계 미국 소설가 맥신 홍 킹스턴(Maxin Hong Kingston)의 『여인 무사(The Woman Warrior: Memoirs of a Girlhood Among Ghosts)』(1976)는 공산 혁명이 여성에게 준 ‘일자리’와 ‘그들의 방’이 보편 인권이 입각한 여성 주체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했다. 킹스턴의 『여인 무사』중 2장에 등장하는 고대 중국의 강인하고 남성적인 혁명 여전사 화목란(Fa Mu Lan)은 미 디즈니사의 애니 물란(Mulan) (1998)에 이르러 실패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지혜롭고 양성적인 소녀의 모습으로 번역된다.

이 글은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 번역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이 근대적 보편주체가 되기까지 어떤 특수성 속에 구현되었고 어떤 경쟁하는 보편성 가운데 수행적 모순을 통해 여성주체를 보편적인 것으로 구성해갔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당대의 특수한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문화 위치에서 수행적으로 무대화되는 보편성, 반복 속에 차이를 안고 있는 문화 번역의 작업을 통해 재의미화되고 재구성되는 보편성이라는 주제로 「자기만의 방」과 『여인 무사』를 경유해 물란 에 나타난 ‘창의적 틈새(creative chasm)²⁾이자 ‘격렬한 운동(violent shuttling)³⁾으로서의 ‘돈’과 ‘방’의 의미를 새롭게 문화 번역하는 것이 주요 작업이 될 것이다. 여

2) 버틀러는 번역의 틈새는 나의 외부의 것과 접촉할 조건, 탈아적 관계성의 매개, 그리고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만나 뭔가 새로운 것이 발생하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이를 ‘새 의미를 발생시키는 틈새’라는 의미에서 ‘창의적 틈새’라고 줄였다. Judith Butler, *Parting Ways: Jewishness and the Critique of Zionism* (New York: Columbia UP, 2012), p.12.

3) Judith Butler, "Restaging the Universal,"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 on the Left* (London: Verso, 2000), p.37.

성이라는 특수성과 역사적 지역적 차이에 주목해 보편성의 근본적 순수성을 과열시키고 보편에 부착된 특수성의 유령을 드러냄으로써 수행적 모순 속에서 새롭게 보편성을 재의미화하기 위해서다.

2.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 번역: 경쟁하는 보편성과 수행적 모순

‘문화 번역(cultural translation)’은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의 관점에서 번역의 문화적 변용가능성을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한 이론적 접근 방법론으로, 번역에 있어서 의미의 등가성이나 충실성보다는 번역 생산의 기제, 문화 사이의 타협 불가능한 차이를 세계 속으로 도입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의식을 안고 있다. 문화번역 논의는 1950년대 인류학⁴⁾, 1970년대 번역학⁵⁾에서 제기되었으나 이 글은 벤야민(Walter Benjamin)부터 호미 바바(Homi Bhabha), 스피박(Gayatri D. Spivak)에 이르는 포스트 식민 담론의 문화 번역 맥락에서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번역 이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인류학의 문화번역이 제 1세계의 관점에서 타 문화의 특수성을 파괴하는 권력과 전유의 담론이라면, 1980년대 포스트 식민담론의 문화번역

4) 문화 번역이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된 곳은 1950년대 인류학과 민속지학 분야이다. 이때 문화 번역은 ‘타 문화의 번역’을 의미했고, 다른 언어에 들어 있는 다른 문화의 사유 양식을 서양 독자에게 서양 언어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인류학적이고 민속지학적인 작업이었다.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Geertz)는 『번역에서 발견되는 것(Found in Translation)』에서 타 문화를 기술하는 작업은 기록자 자신의 문화적 편견과 해석 틀이 개입된 구성물을 생산한다고 주장했고, 타 문화를 해석하고 기술한다는 것은 투명한 객관적 재현이 아닌 불투명한 주관적 행위라고 본다. 마정미, 『문화 번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34쪽.

5) 1970년대 번역학에서도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번역학 관점에서의 문화 번역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대치하는 일반적 번역과 달리 타자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등에 내재화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행위다.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5), 48쪽.

은 제 3세계의 관점에서 식민지 토착민이 새로운 이주자로서 자신의 문화를 주인 공동체 안에 번역해 넣고 1세계를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또한 번역학 관점에서도 사회적 권력체계와 이데올로기적 규범의 문화적 의사소통 문제가 기존 번역론에 포함되면서 문화텍스트의 번역은 두 언어 사이의 거래가 아닌 두 문화 사이의 복잡한 교섭이 되었고, 번역 단위도 문장이나 문단이나 텍스트를 넘어선 언어 전체와 문화로 확대되었다. 문화 번역은 의미의 등가성이나 충실성보다는 그것이 생산되는 메커니즘이나 문화들 사이의 차이, 문화 내부 및 외부의 통약 불가능한 차이를 세계 안에 도입할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⁶⁾

버틀리의 문화번역 연구는 호미 바바와 스피박의 영향을 받았다. 호미 바바는 발터 벤야민의 문화사이의 ‘경계선’에서 문화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문화 횡단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문화번역이 일어나는 문화적 경계 지대의 문화번역가에 주목했다. 바바에게 문화의 변형 주체는 ‘이주민’이며 이제 지배문화가 이주민에 의해 문화적으로 번역된다. 『문화의 위치 (*Location of Culture*)』에서 바바는 ‘피식민주체’의 행위주체성을 이론화하고 현대 문화를 타자성과 연결해 조망하여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대항 서사의 생산을 문화 번역으로 개념화한다.⁷⁾ 바바에게 문화번역은 이질적 문화가 만나 소통하며 혼종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여러 문화가 서로 만나 갈등함으로써 생기는 복합적 양상을 보여준다. 버틀리는 자신의 문화번역 논의가 바바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바바의 ‘모방적 분열(mimetic splitting)’이라는 정체성 형성의 분열된 조건이 여러 소수 정체성들이 생산되고 성장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수행성 개념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⁸⁾

6)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 p.303.

7) “Cultural translation desacralizes the transparent assumptions of cultural supremacy, and in the very act, demands a contextual specificity, a historical differentiation within minority positions.”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 p.228.

8) Judith Butler, “Universality in Culture”, *For the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스피박은 인도의 사티(sati) 제도⁹⁾를 바라보는 영국 제국주의와 인도 민족주의의 관점 차이를 조망했는데 전자는 이를 명백한 살인 행위이자 야만적 문화로, 후자는 민족 전통을 유지하려는 자발적 선택으로 번역했다.¹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충돌하는 담론의 주장들은 모두 보편의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보편성은 현실 속에서 이처럼 상반되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버틀러도 외세의 간섭에 대항하는 국가 주권의 주장과,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개입 주장은 모두 보편성의 관점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지역의 복잡한 지형 속의 이렇게 ‘경쟁하는 보편성’ 사이에서 쉽게 판결을 내릴 방법은 없다고 본다.¹¹⁾ 따라서 외관상의 논리적 불일치(incompatibility)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중첩된 집합에 속하는 경쟁하는 보편성 개념들 사이에서 ‘번역 실천’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

모야 로이드(Moya LLoyd)는 번역의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가 무대화 된다는 면에서 버틀러의 문화번역이 주로 바바의 논의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버틀러는 보편성이 다른 언어안에서 다양하고 경합하는 외양을 만들기 때문에 보편성에 관한 하나의 문화번역 형태가 있는게 아니라, 여러 다른 문화적 해석본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특히 무엇이 보편성으로 간주되어야 할지에 대한 국제적 층위의 문화적 합의의 부재를 보면, 보편적 주장은 누가 만드는 것이고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에 관한 불일치, 즉 ‘경쟁하는 보편성(competing universalities)’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쟁하는 보편성의 맥락에서 더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Limits of Patriotism, ed. Joshua Cohen (Boston: Beacon, 1996), p.49.

9) 남편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아내가 죽은 남편의 시신과 함께 화장되던 과거 힌두교 풍습.

10) Gayatri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 C. Nelson and L. Grossberg (Urbana: U of Illinois P, 1988), pp.271-316.

11) Judith Butler, "Competing Universalities,"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 on the Left* (London: Verso, 2000), p.164.

12) *Ibid.*, p.167.

보편성의 개념과 실천을 발전시키려면 기존의 역사적 보편성 표현의 근거가 되는 배제들과 국지적 이상들을 규명해야 한다.¹³⁾ 이처럼 규범이 규범안의 타자성(alterity), 즉 그것 없이는 자신의 경계를 상정하지도 그 한도를 알지도 못할 타자성을 드러내는 번역은, 규범이 자신이 의미하는 보편의 범위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규범의 희망찬 양가성(promising ambivalence of the norm)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 문화번역의 과제는 보편성 안에서 보편성으로 말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편성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으로 인해 불가피해진다.¹⁴⁾

우선 보편성이 보편성이 되려면 다양한 특수성들이 경합하는 장을 통해 하나의 보편성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떤 보편성의 주장도 문화적 규범이나 권력 작용 관계와 동떨어져서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규범들을 통해 설정되는 보편성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문화번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편성을 주장할 수 없다. 번역이 없이는 보편성 개념은 규범적 의미의 경계들을 가로지르고 특수성을 지닌 차이를 가로질러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문화번역 없는 보편성의 주장이 보편적인 것에 이르는 방법은 식민주의적 확장논리를 통하는 것뿐이다. 선교의 역사나 식민 팽창의 역사를 본다면 페미니스트 역시 빈곤층, 토착민, 권리가 박탈된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이 그들을 가르치려 들면서 식민화하는 노력은 아닌지, 혹은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번역을 조건을 공인하려 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¹⁵⁾

그러나 한편, 이렇게 구성된 보편성은 언제나 자신의 내부에 구성적 외부로 배제된 특수성의 흔적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재의미화가 가능하다. 번역이 필요한 것은 언제나 특수에 오염되어 있는 보편의 특성 때문이며,

13) Moya Lloyd, "Cultural Translation," *Judith Butler* (Cambridge: Polity Press, 2007), pp.151-2.

14) Judith Butler, "Universality in Culture," *For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m* (Boston: Beacon Press, 1996), pp.49-50.

15) Judith Butler, *Undoing Gender* (New York: Routledge, 2004), p.229.

보편에서 특수성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란 불가능하다. 그 특수성은 보편 안에서 무대위 행위처럼 수행적으로 무대화된다. 제국주의나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편화된 주장은 보편성의 순수성을 주장하지만, 이 보편성을 무대위에 새롭게 상연함으로써 보편성에 부착되어 있는 특수의 유령을 드러내고 보편이라는 의미의 재의미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번역은 문화 경계가 분명하고 뚜렷하며 통일된 두 언어 사이의 번역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양쪽 언어 각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친숙한 것, 지역적인 것, 이미 알려진 것의 경계에서 이런 이때는 양측 모두에게 윤리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기회가 될 것이며, 방향 상실속에 인간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¹⁶⁾ 보편성에서 관습적으로 배제되어 온 사람들이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수행적 모순’을 생산하지만 이런 모순은 헤겔식으로 말해 자기 소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성 개념 자체의 유령적 이중화를 드러낸다.¹⁷⁾

헤겔의 보편성 개념도 혼성 문화와 민족 경계의 동요리는 조건 아래 합당한 것으로 입증되려면 문화 번역의 작업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란 경계가 분명한 실체가 아니라 문화들 간의 교환양식이 그 문화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번역의 구성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보편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¹⁸⁾ 결국 다양한 특수성들에 기반해 경쟁을 통해 하나의 보편성이 구성되고 나머지 특수자가 보편자로 흡수되어도 이에 흡수될 수 없는 잔여가 흔적으로 남아 보편성은 스스로에게 유령적

16) *Ibid.*, p.38.

17) Judith Butler, "Universality in Culture," *For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m* (Boston: Beacon Press, 1996), p.37.

18) "If we are to begin to rethink universality in terms of this constitutive act of cultural translation, which is something I hope to make clear later on in my remarks, then neither a presumption of linguistic or cognitive commonness nor a teleological postulate of an ultimate fusion of all cultural horizons will be a possible route for the universal claim." Judith Butler, "Restaging the Universal,"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 on the Left* (London: Verso, 2000), pp.20-21.

인 게 된다.¹⁹⁾ 다시 말해 보편성에는 보편성에 대립하는 특수한 것의 흔적이 유령처럼 붙어 다니며 이로 인해 보편성은 '유령적으로 이중화(spectral doubling)'되고 특수한 것이 부착되어 보편성 주장의 형식성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이런 보편성에 부착된 '유령 같은 특수성'이라는 이중화 전략을 번역하여 보편을 재의미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번역은 지배 언어가 다룰 수 있는 것의 한계도 드러내기 때문에 번역에는 반식민주의의 가능성이 있다. 지배언어의 용어가 종속된 문화의 언어(관용어, 담론적 제도적 규범)로 번역될 때 그것이 번역 사례마다 언제나 똑같은 것은 아니다. 사실 지배언어의 용어 형태 자체가 종속이라는 맥락에서 모방되고 재배치되면서 변할 수 있다.²⁰⁾

이처럼 경쟁하는 보편성의 문화번역이나 수행적 모순을 통한 전복의 가능성 논의는 사실 버틀러 초기작에서 수행성의 의도를 넘는 효과나 반복을 통한 재의미화 효과에서 논의된 바 있다. 정혜옥은 이런 버틀러의 문화번역을 '무대위의 재상연'이라는 관점에서 버틀러가 초기 젠더 논의에서 강조한 반복 실천이나 수행성의 '재의미화(rearticulation)'와 맞닿아 있으며 후기작 『갈림길(*Parting Ways*)』에서도 이어진다고 주장한다.²¹⁾ 실제로 버틀러는 초기작 『혐오 발언』에서 혐오 발언이나 포르노의 문제

19) *Ibid.*, p.24.

20) *Ibid.*, p.37.

21) 정혜옥은 『갈림길』에서 버틀러가 주장하는 문화번역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문화번역은 수행성이자 반복차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서 이전이 '재의미화'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재의미화의 상황성을 넘어서며 둘째, 번역은 이산이자 디아스포라, 산포이자 이동이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아닌 타자와의 관계성이며 관계성에 기반을 둔 윤리이고 셋째, 번역은 타문화에 대한 주권성의 주장이나 타문화의 지배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동일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를 떠나 타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나와 타자 사이의 비폭력적 공존 가능성과 공동거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혜옥, 「주디스 버틀러와 문화번역의 과제」, 『비평과 이론』 20.1 (2015 봄), 146~147쪽.

를 국가의 규제나 검열보다는 수신자의 맞받아치거나 응수하기라는 수행적 행위 속의 저항과 전복의 가능성으로 대응하면서 문화 번역의 중요성을 논의했고²²⁾, 『젠더 트러블』 재판 서문을 쓰면서도 그 책 자체가 자신의 의도를 초월해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조망한 바 있다.²³⁾

보편성을 발화하는 문화적 위치를 강조할 때 번역의 위험부담을 떠안지 않는 유효한 보편성 개념은 있을 수 없으며, 바로 그 보편성 주장이 문화속의 다양한 언어 규범의 무대화에 묶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떤 보편성을 주장할 때 문화적 특성에서 그 형식을 분리하기란 불가능하며, 번역이 없이는 보편성의 개념 자체가 자신이 넘을 수 있다고

22) 버틀러는 1997년 『혐오 발언』에서 혐오 발화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국가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문화 번역에서 필요한 보편성의 경합과 수행적 모순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 우리가 준비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보편성은 이미 상상된 경계에 있는 '보편성의 경합'에서 그 표현이 나온다. 문화 번역의 과제는 보편성 안에서 보편성으로 말할 권위가 없는 자가 그 용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발생하는 '수행적 모순'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다. 규범안의 타자성을 말하고 드러내는 것은 규범이 스스로 주장하는 보편성의 범위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내며, 또한 규범의 양가성이 새로운 의미화를 가능하게 할 희망의 순간이기도 하다. 규범의 실패는 그 이름이 그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이름으로 말하는 자가 행하는 '수행적 모순'으로 드러내며 문화 번역의 현재 장면은 발화가 모든 곳에서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갈등의 장이 되었다는 전체 속에 나타난다.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Routledge: New York, 1997), pp.91-2.

23) 1999년 『젠더 트러블』의 개정판 서문을 쓰면서 버틀러는 10년전 탈고한 자신의 책이 일종의 문화 번역 작업을 일으켰다고 말한 바 있다. 『젠더 트러블』에 레비-스트로스, 푸코, 라강, 크리스테바, 위티그 등의 프랑스 이론이 상당수 전유되면서 프랑스 후기구조이론의 미국적 구성물을 만들었고,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이론이 미국의 젠더 이론과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버틀러의 의도는 아니지만 이론은 필시 불순한 새 거처를 갖게 되고 그곳에서 이론은 문화 번역 사건속에 문화번역 사건으로 등장한다. 이는 문화의 지평들이 만나는 현장에서 이론이 등장하는 것이고 거기서 번역에 대한 요구는 격렬하되 그 성공 전망은 불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08), p. x.

주장하는 언어적 경계를 넘지 못한다. 버틀러는 구체적 맥락에서 경쟁하면서 당대의 규범속에 무대화되고 의미화되는 보편성과, 수행적 모순속에 새롭게 무대화되고 재의미화되는 보편성에 주목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예외도 없는 절대적 보편성이 아니다. 모든 보편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놓일 때에만 그 실천과 수행적 효과를 통해 보편 진리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편을 주장하는 의미와 힘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맥락을 비워버린 추상적 보편은 그 안에 기입된 권력 작용을 그대로 수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투명한 번역이 가장 배반적이며, 보편이 말 그대로 보편이 되기 위해서는 지리, 정치, 역사적 맥락에서 보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들에 의해 끊임 없이 다시 쓰여야 한다.

페미니즘 또한 특수와 보편을 연결하는 번역 실천이 될 수 있다.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우리'의 보편성 주장은 특정 주체를 보편 주체로 수행하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런 우리의 주장은 여러 보편적 주장들이 경쟁하면서 그 의미와 힘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수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속에 있다. 이는 그 어떤 보편성의 주장도 문화적 규범 및 권력 역학 관계와 동떨어져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장에서 규범들이 경쟁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규범들을 통해서 설정되는 경계를 가로지는 문화번역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주장도 가능하지 않다. 다시 말해 문화 번역 없이는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규범의 경계와 특수성의 차이를 가로질러 보편화되지 못한다. 문화번역 없는 보편성의 주장이 이 경계들을 가로지를 가능성은 식민주의적 확장 논리밖에 없다.

버틀러의 문화번역은 보편성의 실정적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개별자들 간의 소통과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통된 목표의 인식에 기초한 정치 공동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외견상의 모든 논리적 양립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중첩되기도 하는 일군의 사회적이고 정치적 목표에 속하는 경쟁하는 보편성 개념들 사이에서 번역 실천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²⁴⁾ 그에 따라 다문화주의 정치는 문화상대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 운동을 판단하고 또 구성하기도 하는 ‘번역’의 정치로 이해해야 한다.

번역이 헤게모니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언어의 담론이 ‘외래’ 단어를 자신의 단어 사전에 수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변해야 할 것이다. 성적 소수자들의 성적 해방을 위한 운동의 보편화 효과는 보편성 자체를 재고하는 것, 그 의미를 경쟁하는 의미론적 작용으로 쪼개는 것, 그것이 지칭하는 삶의 형태, 또 그 경쟁하는 용어들을 다루기 힘든 운동으로 엮어 넣는 것 등을 포함할 것이다..... 실로 나는 지적과는 반대로, 정치적으로 필요한 종류의 번역은 다문화주의 형태에 적극 개입하는 게 포함된다고 생각하며, 다문화주의 정치를 특수성의 정치로 축소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다문화주의 정치는 경쟁하면서 겹쳐지는 보편주의 운동을 판결하고 또 구성하면서 일어나는 번역의 정치로 볼 때 더 잘 이해된다.²⁵⁾

버틀러의 ‘문화번역’은 개별자들에 잠재된 채 경쟁관계에 있는 보편성의 담론을 묶을 수 있는 ‘언어들 사이의 언어(language between languages)’를 마련하는 일이고 보편자에 의해 실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보편자를 본질적으로 구성한다는 해체론적 인식론에 기초하여, 기존 담론에 의해 관습화 되어 초월적 보편자로 정식화된 현존 보편자가 ‘텅 빈 것’ 혹은 ‘비-장소’임을 폭로한다. 보편성의 선형적 구조가 특정한 철학적 관점에 특권을 부여해서 보편으로 구성하는 권력의 작용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하여 식민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보편성에 맞서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적 모순’에 주목하지 않는 번역은 공허하거나, 더 나쁜 것은 제국주의와 공모하는 번역으로 전락하기 쉽다.²⁶⁾ 수행적 모순이 무

24) Judith Butler, "Competing Universalities,"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 on the Left* (London: Verso, 2000), p.168.

25) *Ibid.*, p.169.

엇으로 구성되는지, 같은 담론적 실천속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말하는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 보편성 속에 언제나 결여가 있다는 식으로 보편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구체성속으로 들어갈 때 번역의 윤리가 가능하다. 타문화의 이질성과 관계맺기를 거부한다면 번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결국 버틀러의 '문화번역'의 핵심은 번역의 정치적 수행이며, 서구적 보편성을 과열시키고 해방적 보편성을 구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결핍을 안고 경쟁하는 다문화주의 집단들을 소통시켜 보편성의 대의를 지향하는 단일한 정치체로 묶을 수 있는 '실천'으로서의 문화번역이다. 번역 작업은 경쟁하는 개별자들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초월적 결핍'을 보편자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매개행위라서 번역에는 반식민주의적 가능성이 있다. 보편성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고도의 경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경쟁의 장 외부에서는 어떤 의미로도 접합될 수가 없다. 보편성은 적대자들이 하나의 공통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비-장소'이자 '순수 거리'로 언제나 균열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발생에 책임이 없고 그 안에 영광을 얻을 수 없으며 끝이 열린 헤게모니 투쟁에 속해 있다.²⁶⁾ 문화번역은 경쟁하는 보편성이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할 때 비로소 보편성일 수 있다고 읽어낸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문화 번역' 연구는 번역 자체를 정치적 행위로 보며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암시하는 정치권력적 구도에 주목하여 문화간 접촉과 교섭을 일종의 번역 행위로 읽어낸다. 번역을 일종의 '이해와 비판'으로 이해했을 때 번역은 언어학적 번역에서 벗어나 문화 번역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화번역은 두 문화 사이의 창발적 틈새와 혼종성의 조건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문화번역에는 윤리적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주체에

26) Judith Butler, "Restaging the Universal,"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 on the Left* (London: Verso, 2000), p.35.

27) *Ibid.*, pp.37-8.

게 말할 가능성을 준다는 수행적 모순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정치학과 윤리학의 분명한 구분을 극복하고 이 두 개가 겹쳐지는 영역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기동일성 및 주권적 주체 개념과 경합하면서, 내가 다른 곳에서 받아들인 자아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주권적 권리를 넘어 나에게 행위하면서 ‘내가 아닌(not me)’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를 확립하는 행동을 의미하게 된다. 어떻게 내가 타인에게 양보할 것인지는 윤리적 성찰의 핵심 부분이 되는데, 그 말은 성찰이 주체를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탈아적 관계성(ec-static relationality)’²⁸⁾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완전히 알지도 전적으로 택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했던 주장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초월해 행동하게 되는 방식, 우리의 주권과 국가가 박탈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²⁹⁾ 우리는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틈새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윤리적 자원이 번역의 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번역에서의 틈새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 탈아적 관계성의 매개수단,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만나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장면과 접촉할 조건이 된다.³⁰⁾ 그리고 나 이전에 타자의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윤리적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이제 이런 버틀러의 문화번역이 어떻게 시대적, 역사적, 인종적, 지역

28) 탈아적 관계성은 『젠더 허물기』 이후 버틀러가 꾸준히 주장해 온 개념으로, 개인의 주체성이 언제나 타자를 전제하며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윤리적 관점을 내포한다. 버틀러는 나의 젠더나 섹슈얼리티도 내 것이 아니며 소유권이 박탈된 양식으로 이해해야 하며 관계성 속의 균열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ec-stacy는 ex-stasis로 정태적 주체로부터의 탈주, 존재로부터 이탈된 탈아, 나 자신을 잃은 나, 내 정체성이 내 외부의 규범에 의존하는 행위주체를 말한다. 우리 존재의 탈아적 특성은 인간으로서 존속될 가능성에 필수적인 것이다. Judith Butler, *Undoing Gender* (New York: Routledge, 2004), p.19, p.33.

29) Judith Butler, *Parting Ways: Jewishness and the Critique of Zionism* (New York: Columbia UP, 2012), p.9.

30) “In this way, the chasm in translation becomes the condition of contact with what is outside me, the vehicle for an ec-static relationality, and the scene where one language meets another and something new happens.” *Ibid.*, p.12.

적으로 다른 여성 주체의 양상에 나타나는지 ‘경쟁하는 보편성’과 ‘수행적 모순’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윌프 시대의 현실의 영국 여성, 킹스틴이 겪었던 구봉건 중국 여성과 공산 혁명 이후의 신중국 여성과 미국 이민자 여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여성 주체라는 보편성이 어떤 정치적 투쟁과 경합의 장에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킹스틴의 소설에 등장하는 고대 무사 화목관과 그것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디즈니사 영화 속 물란을 중심으로 시대, 지역, 인종의 복합적 번역 양상에 따라 보편에 유평처럼 내재한 특수라는 보편성의 이중성이 새롭게 재의미화되면서 지배언어를 변화시킬 반식민주의적 변혁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자기만의 방』과 『여인 무사』에 나타난 돈과 방: 경쟁하는 보편성

버틀러에게 보편성은 항상 문화적 규범의 관점에서 표현되고 제한되는 경쟁의 장이다. 보편성이란 선형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특수한 정치 기획들이 보편성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보편성이 보편성의 의미를 얻는 것은 보편성 획득을 위해 경쟁중인 특수성이 특수성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배제 메커니즘을 통해 보편성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이다.³¹⁾ 『자기만의 방』과 『여인 무사』에 나타난 보편 인권을 가진 여성주체의 요건도 각기 특수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돈’과 ‘방’의 의미를 놓고 경합중이다. 윌프와 킹스틴에게 돈과 방은 보편적 위치를 얻기 위해 경합중인 특수성들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영국은 식민지 수탈로 부유해진 대표적 제국 열강이고, 중국은 이 제국의 착취를 근대와 함께 겪어낸 피식민 수탈국이지만 두 나라 모두에서 여성의 권리는 보편 시민의 권리에 미치지 못했다. 20세기 영국 여성은 참정권의 획득으로 보편 인권 주체에 한 걸음 다가

31) 박미선, 「보편과 특수: 번역실천으로서 비판이론과 페미니즘」, 『문화과학』 (2008 겨울), 477쪽.

갔다면 중국 여성의 보편 인권은 쑨원의 신해혁명에서 주장되고 마오쩌둥의 공산 혁명에서 일부 실현되었다. 신해혁명은 모든 인간의 보편권을 주장했고, 공산혁명은 여아 살해의 악습을 끊고 여성에게 직업 기회와 공동 작업장을 제공해 여성을 가부장제하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다.

20세기 초 영국의 상황은 목숨 건 서프러제트의 정치 투쟁으로 인해 1918년 30세 이상이면서 일정 재산을 갖춘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1928년에 이르러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보통, 비밀, 직접, 자유, 평등 선거를 허용했다. 그러나 여성에게 대학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직업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던 당시의 상황에서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보편 주체에 이르는 길은 요원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1949년 공산 혁명이 여아 살해, 조혼, 전족, 아동 결혼과 축첩 등의 악습을 타파하고 공공식당과 탁아소를 건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했고, 같은 해 10월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언하면서 봉건제 폐지, 남녀평등, 혼인의 자유가 선포되고 이후 중국은 ‘신 중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교 전통에 뿌리박은 남성 중심 가부장제를 혁파하고 남녀평등의 인권사상에 입각한 동등한 기회의 가능성을 열긴 했으나 법과 제도가 바뀐들 기존 세대의 전통적 가치관과 남녀유별, 남존여비 사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울프와 킹스틴은 이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여성해방의 조건이 돈과 방이라는 공통적 견해를 갖고 있다. 돈과 방은 경제적 기반과 물질적 토대라는 의미인데 이 두 가지 해방의 조건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경합중이다.

우선 울프는 여성들 각자가 연간 오백 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을 가진다면, 즉 돈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용기와 자유를 가지고 공동의 생활공간이 아닌 작가의 개인의 독자적 공간을 갖게 된다면 보편 인간인 여성 주체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치적 권리보다도 이런 물질적 수단이 당시의 여성에게 허용된 제한된 직업 중 하나인 작가가 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라고 여겼다. 울프에게 중요

한 것은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물적인 기반, 생활을 위한 잡일의 의무로 창조성을 훼방 받지 않게 할 안정적 경제력과 가정의 가사 업무로부터 분리된 작가로서 독립적 사색의 공간이다.

나는 내게 매년 오백 파운드가 지급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둘--투표권과 돈--중에 돈이 무한하게 더 중요해 보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지요. 그 전까지 나는 신문사에 잡다한 일자리를 구걸하고 여기에다 당나귀 쇼를 기고하고 저기에다 결혼식을 취재하면서 생계를 이어 나갔지요.³²⁾

나는 마지막 장을 읽으며 그녀에게 백 년을 더 주자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만의 방과 연간 오백 파운드를 주자, 그녀가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쓴 것의 절반을 빼내버리도록 허용해 주자, 그러면 그녀는 조만간 더 나은 책을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³³⁾

반면, 킹스톤은 미국 이민자 2세대로 구중국과 신중국, 고국 거주민과 미국 이민자간의 변화와 갈등의 시대를 살았다. 더 나은 직업과 삶의 기회를 위해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이민간 중국계 미국인 1세대는 미국 본토에서 자라 교육받은 2세대와 갈등을 일으켰고, 새 세대는 중국적 가치와 미국적 가치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켰다. 펑란(Feng Lan)에 따르면 『여인 무사』에 나타난 킹스톤의 역사적 지도에는 두 개의 중국이 있는데 하나는 구 봉건 중국(the old feudal China)이고 다른 하나는 신 공산 중국(the new red China)이다.³⁴⁾ 킹스톤의 구 중국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

32) Virginia Woolf, *A Room of One's Own* (London: Grafton Books, 1987), p.37.

33) *Ibid.*, pp.89-90.

34) Feng Lan, "The Female Individual and the Empire: A Historicist Approach to

며 구 중국은 일종의 디스토피아, 특히 여성이 살수 없는 곳으로 그려지는 반면,³⁵⁾ 신 중국에 대한 태도는 양가적이다.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하자 부유하던 킹스턴의 친척들은 지주로 몰려 처형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했지만 1960년대와 70년대 서구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마오의 혁명을 정의로운 사회를 성립하려는 고귀한 목적으로 추동된 정당한 농민 운동으로 제시했는데³⁶⁾ 킹스턴 역시 마오가 여성의 명분을 진지하게 주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마오의 공산 혁명과 여성 해방에 대한 기여를 높이 산다.³⁷⁾ 마오는 중국 유학 사상에 뿌리박힌 여아 학살의 관행을 파괴하

Mulan and Kingston's *Woman Warrior*," *Comparative Literature* 55.3 (Summer, 2003), p.240.

- 35) 구 중국을 대표하는 유학 사상의 창시자인 공자는 화자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 여성 보편권에 가장 부정적인 인물로 표현된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중국인은 못된 머느리에게 꿀을 발라서 발가벗긴 채 개미굴 꼭대기에 매달아두었다. 또 공자는 말하셨지.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이 죽어도 된다고.’ 공자, 그 합리적인 남자.” Maxine Hong Kingston, *The Woman Warrior* (New York: Everyman's Library, 2005), p.193. 앞으로 본문 중 이 책에서의 인용은 본문중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 36) 이들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 지식을 약간 가진 서구 저자들이 쓴 책을 중심으로 마오의 공산 혁명에 대해 이해했는데 그들이 참고한 책은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 『오늘날의 공산 중국』, 헬렌 스노우의 『근대 중국의 여성』, 펄 벅의 『중국: 과거와 현재』,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중국 여성에 관하여』 등이 있다. Feng Lan, "The Female Individual and the Empire: A Historicist Approach to Mulan and Kingston's *Woman Warrior*," *Comparative Literature* 55.3 (Summer, 2003), p.241.
- 37) 공자의 남존여비 유학 사상과 달리 공산 혁명은 계급 위계를 혁파했다. 중국 공산당은 1919년 5.4 운동의 결과로 1921년에 창당된 뒤 천두슈, 마오쩌둥, 리다, 마오둔 등의 중심으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삼았다. 1911년 쑨원의 신해혁명은 중화민국을 탄생시켰고 이후 절대왕정을 의미하던 구 중국의 과의 급진적 단절을 통해 황제가 받드는 유학 이념을 버리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한다. 공산당은 이후 1924년 쑨원의 국민당과 합작하면서 규모가 커졌으나 1927년 국민당과 결별했고, 장제스가 중국 대륙의 통일을 선언하고 국민 정부를 수립하면서 위기도 맞았다. 이후 중화 소비에트공화국을 거쳐 1949년 공산 혁명으로 국민당에 승리하기까지 공산당은 도시 노동자, 농민, 하급 지식인, 학생 등을 포섭해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과 맞서 싸웠고 혁명이 성공한 후 재산과 토지를 재분배하고 여성에게 직업기회를

고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의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이다. 공산 혁명은 기존 유산계급에게는 공포와 독재, 폭력을 통해 토지와 재산을 재분배하는 억압적인 모습으로 보였지만, 여자의 결혼은 노예살이와 매춘이라는 구 중국의 봉건적 가치를 전해들은 킹스틴에게는 직업과 작업장, 경제적 독립과 물질 기반으로 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여아 살해의 악습을 끊을 계기인 것이다.

나는 재봉틀에 앉아 만족해하는 여자를 보여주는 공산당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그녀의 머리 위쪽 선반에 상자 하나가 있다. 상자에 스텐실 도안된 글자는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뜻이지만 문자 그대로는 ‘마음 좀 써 주세요’라고 써 있다. 그 여자는 매우 기뻐 보인다. 공산 혁명은 여자들이 원하던 것, **직업과 그들만의 방**을 줌으로써 매춘에 종지부를 찍었다.(62)(강조는 필자의 것)

아무도 공산 혁명(해방)이 소녀 노예 제도와 여아 학살을 (남아면 마을 전체의 잔치를) 금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여자들은 결혼을 하기보다 차라리 목숨을 끊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산당원들이 여자 아이의 생일날 집안 가득 불을 환히 밝히기를.(191)

사실 둘을 비교해 보면 울프에게 필요한 것은 1920년대 여성 작가가 저소득 잡무에 얽매어 작가의 창조력을 소진하지 않을 물질적 유산이라는 안정된 경제적 기반인 반면, 킹스틴에게 필요한 것은 신 중국이 여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 중국의 여성 차별로부터의 해방이다.³⁸⁾ 이처럼

부여한다.

38) 공산혁명 이전의 중국인에게 여자라는 건 여러 면에서 불운과 제약, 남의 집에 좋은 일을 의미했다. 중국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깨끗한 재 상자를 준비했고, 여아가 태어나면 친척이나 산파가 아기 얼굴을 재 속에 얹어 죽였다. “딸은 쌀벌레와 같아서 딸을 기르느니 거위를 기르는 게 수지맞다”거나 “딸을 교육하느라 낭비하는 건 소용이 없으며 딸을 기르는 건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일 하는 셈”이라던가

돈과 방은 보편 인권을 가진 여성 주체의 삶의 요건이지만 새 맥락에서는 새롭게 번역된다. 물려받은 유산은 개인의 노력과 노동으로 얻는 물질 수단으로 변화되고 좋은 여성 작가가 될 조건은 구 중국의 여성 차별에서 벗어날 여성의 직업적이고 물질적인 독립, 또 노동이 이루어지는 협동의 장으로서 공공 작업장으로 문화 번역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자기만의 방』에 나타난 돈과 방의 의미는 『여인 무사』에서 다르게 번역되는데 이는 경쟁하는 보편성이 특정한 역사적이고 지역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떤 일치된 보편성의 의미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자기만의 방』에서는 여성의 참정권 투쟁이 한참이던 1920년대 중산층 영국 기혼 여성이 좋은 작가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논의했다면, 『여인 무사』에서는 1970년대 중국계 미국 이민자 2세대 여성이 과거 구 중국의 여성 비하적 관념에서 벗어나 하녀나 노예들의 장기적 매춘과 노역을 의미하는 전통적 결혼을 벗어나기 위한 독립의 요건을 모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인 무사』의 화자의 해방에 중요한 것은 물려받은 유산보다는 직업으로 버는 돈, 독립된 사색의 방 보다는 공동 작업장이다. 구 중국의 규범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 대신 자신만의 언어를 갖고, 똑똑해져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가고, A학점을 받는 법을 터득하고 마침내는 '돈을 벌어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어야(I can make a living and take care of myself)' 한다(201). 팔아치울 수도 없는 또 하나의 쓸모없는 딸이 되지 않기 위해 미국에서 물질적 성공을 개인의 솔처럼 몸에 두르는 것이다(55).

“홍수가 났을 때 보물을 낚아 올리려다가 계집에 끌어올리지 마라”는 말이 공공연히 행해질 정도였다. 딸은 미래의 남편 집 재산으로 시집보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교육도 직업도 특권도 남성들의 독차지였다. Maxine Hong Kingston, *The Woman Warrior* (New York: Everyman's Library, 2005), 48, 55, 62 참고.

4. 『여인 무사』와 「물란」에 나타난 돈과 방: 수행적 모순

보편성이 보편성으로 구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흔적을 지워야만 하는 보편성의 타자인 ‘구성적 외부’는 당대의 규범과 역사적 특수성으로 보편성에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배제되고 주변화된 이들의 보편성 주장은 ‘수행적 모순’을 생산한다. 문화 번역은 그것에서 배제된 것이 무엇인지, 즉 내부의 타자성을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보편성을 전복시킨다. 『여인 무사』의 화목관과 「물란」의 물란은 각각 힘과 기지, 남성성과 양성성의 전략을 가져와 힘과 남성성에 기반한 고대 무사의 이야기에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었던 지혜와 여성성을 새롭게 재의미화한다.

『여인 무사』는 복합 판타지 소설이다. 여기에는 많은 귀신 이야기, 유령 이야기, 전해들은 전설과 신화, 실제 중국 역사와 개인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실제로 작가 킹스턴의 부모도 각각 학자와 산부인과 의사이고, 킹스턴 자신도 중국계 미국 이민자 2세대라서 이 소설에는 자전적 요소가 많고³⁹⁾, 일부는 픽션과 논픽션을 모호하게 오가기도 한다.⁴⁰⁾ 사실 킹스턴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머니나 다른 사람이 이차적으로 전하는 이야기라서 설명의 타당성을 판별하기 어렵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

39) 노승희는 킹스턴의 자전적 글쓰기는 일종의 문화적 번역과도 같다고 평가한다. 스피박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번역이란 타자의 언어와 더불어 자아안에 있는 타자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수행되는 작업인 만큼 번역의 매력은 정체성의 고정된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노승희, 「자전적 글쓰기의 에로티즘: 맥신 홍 킹스턴의 『여인 무사』에 나타난 모어의 시학, 『영미문학 페미니즘』 3, 1996, 71쪽.

40) 이 책은 출간되던 해 논픽션 분야에서 미국 비평가 협회상(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을 수상했고, 소설의 형식이지만 여성으로서 화자가 겪은 실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현실을 투영한다. “The novel is clearly written under the sign of women’s emancipation, legitimating, empowering following a credo of the author, instilled in her not through education, but through the political and social realities she experienced.” Andreia-Irina Suci, “Voices and Voicing in Maxine Hong Kingston’s *The Woman Warrior*,” *Americana: E-journal of American Studies in Hungary* 10.1 (Spring 2014), pp.1-11.

은 사실의 진실성이 아니라 킹스틴이 이 이야기들과 어떻게 타협하고 이야기에 동화되는가이다.⁴¹⁾

환상과 유령, 전설과 민담이 복잡하게 얽힌 이 소설을 현실 차원에서만 요약하자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 온 중국인 용란(Brave Orchid)의 큰 딸인 주인공이 중국의 남존여비 사상과 미국의 동양인 차별 사이에서 미국의 이민자 2세 여성으로 살면서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과 언어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다. 킹스틴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머니와 딸들 세대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의 극복이며⁴²⁾ 중국의 민담, 신화, 전설을 다시 읽어내 그것을 미국 사회 혹은 미국의 문화적 맥락에 변형 가공하여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바바가 말하는 틈새 공간(in-between spaces), 즉 제3의 영역에서의 문화 번역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⁴³⁾ 화자의 성장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전설 속의 여성 영웅 화목란과 고대 시인 채연이고, 양가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현실의 어머니 용란, 미친 이모 월란, 그리고 이름 없는 고모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 『여인 무사』중 1장은 남편이 금광을 찾아 미국으로 떠난 사이 사생아를 임신한 고모의 해산날 고모와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중국 고향 주민의 테러를 다룬 ‘이름 없는 여인’으로 시작된다. 2장 ‘흰 호랑이’는 이 책 제목이기도 하고 디즈니 애니 뮈란의 소재이기도 한, 고대의 여인 무사 화목란⁴⁴⁾에 관한 전설이다. 3부 ‘샤먼’은 중국

41) Sangeeta Jhaharia and Mamta Beniwal, "Braving out in the Face of Constraints: The Woman Warrio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2.3 (May 2012), p.253.

42) Rufus Cook, "Cross-Cultural Wordplay in Maxine Hong Kingston's *China Men* and *The Woman Warrior*," *Melus* 22.4 (Winter 1997), p.133.

43) 장정훈, 「동화와 차별화의 욕구 사이의 비결정성: 『여인 무사』와 『조이 럭 클럽』」, 『영어영문학』 52.2 (2006), p.258.

44) 화목란, 혹은 화무란의 영어식 표기는 파뮈란(Fa Mulan)인데, 화목란 설화는 중국 위진남북조시대부터 내려오는 목란 시가로서 아버지 대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돌아와서는 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충효사상 설화이다. 안은주, 『백신 홍 킹스틴의 '중국'과 '미국'재현: 다문화주의 극복을 위한 디아스포라 담론의 가능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6, p.54.

산과학교에서 귀신을 물리치고 의사가 된 용란의 성장기를 다룬다. 4부 ‘서궁에서’는 자신을 버리고 미국에 와 새 아내를 얻은 남편과 맞서려다 실패하는 이모 월란의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5부 ‘야만족의 갈대피리 노래’는 중국식 여성 비하와 미국식 인권 교육 속에 갈등하며 병어리 시기를 거쳐 마침내 목소리를 얻게 된 화자의 성장기가 담겨있다. 이 과정은 스무 살에 흉노족에게 포로로 12년간 잡혀 두명의 아이를 낳고 고향에 돌아와 오랑캐의 노래를 했던 여성 시인 채연의 일화와 겹쳐진다.

이 장은 『여인 무사』중 ‘흰 호랑이’장에 나타난 화목란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을 ‘돈’과 ‘방’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제 영웅이라는 이상적 인간의 요건으로 상정되어 온 남성성과 강인함이라는 보편 가치가 어떻게 그 내부에 유령같은 특수성으로 여성성이나 유연함이라는 구성적 외부를 안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남성성과 강인함속에 수행적 모순으로 재구성되고 재의미화되는 여성성과 유연함의 가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와 가문 중심의 충효사상이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 찾기라는 개인의 심리 발달과 성장과 맞물리는 과정도 살펴볼 것이다.

고대 중국 전설 속의 화목란에게 돈과 방은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로 변화한다. 돈은 오랜 시간 육체적 정신적 수련을 통해 얻게된 남성적 강인함으로 변화하고 방은 그로 인한 가문의 복수와 여성의 해방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애니 「물란」에서 돈은 남성적 강인함과 여성적 기지가 결합된 양성적 전략으로 전환되고 방은 자아 정체성의 발견을 가능하게 해서 결국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화합하게 되는 장으로 나타난다.

우선 「흰 호랑이」장에 나타난 전설속의 여인무사 화목란은 7살에 도인 부부를 만나 15년간 엄청난 수련을 통해 무공을 쌓은 뒤 등에 복수의 맹세와 이름을 문신한 뒤 마을의 원수들에 복수하는 영웅 여인이다. 그녀는 생리일에도 훈련했으며, 결혼 후 사내아이를 출산하고도 태줄을 군기에 메고 갑옷 안에 멜빵을 달아 아이를 안고 전쟁터에서 버틴 불굴의 여

인이자 전쟁 영웅이다.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자연과 동화되어 호흡하면서 기아와 채식으로 15년간 수련한 결과 얻어진 무공은 생리와 출산이라는 여성의 육체적 취약성을 극복하게 했고, 수련의 결과로 얻어진 남성적 칼날의 무소불위의 위력은 만나는 장수나 황제마저 목을 쳐낼 강력한 위력이 된다. 무공과 같은 현대의 울프나 킹스틴이 추구하던 돈의 다른 모습이다.

부모님이 복수의 문구를 화목란의 등에 새길 때 그녀가 들어갔던 가족방(family hall)과 북경에서 황제와 영주의 목을 친 뒤 발견한 여자들을 갇혀 있던 잠긴 방(locked room) 또한 화목란에게 중요한 해방의 도구이다. 가족방에서 목란은 복수의 마음을 자신의 몸에 새기면서 고통 속에 가족의 희생을 상기하고 혁명적 체제 전복의 의지를 다지며(36),⁴⁵⁾ 실제 공산혁명을 상징하듯 농민을 황제로 추대하고, 여인 복수객(female avenger)이 되어 가족을 징집해갔던 영주도 처단한 뒤 잠긴 방의 여자들을 해방시킨다. 전족으로 인해 걷지도 못해 기어 다니는 여자들을 쌀 한 자루씩 주고 해방시켜 훗날의 여성 군대를 키워낸 것이다.(46) 목란은 칼날로 등에 새겨진 붉고 검은 글자들의 행렬이 "군대, 나의 군대 같다(like an army, like my army)"(47)고 했는데 실제로 그녀가 잠긴 방에서 해방시킨 여성들은 용병 군대(mercenary army)의 여성 무사(swordswomen)가 되어 쉽게 버려지는 가난한 집의 여자아이들, 도망친 여종과 며느리를 모아 마녀 여전사(witch amazons)로 양성했다.⁴⁶⁾ 따라

45) 이 대목은 화목란 설화와 악비(Yue Fei) 설화를 혼용한 것으로 원래의 설화에서는 악비 어머니가 악비의 등에 네 글자를 새겨 넣었다. 킹스틴은 악비라는 남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무사에 접목시켜 성의 경계를 넘어 중국설화의 자유로운 변용에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김여진, 「맥싱 훙 킹스틴 『여인무사』에 나타난 마술적 리얼리즘과 중국계 하위주체 여성의 목소리 복원」, 『영어권문화연구』 5권 2호 (2012): p.72.

46) 윈스브로는 사회에서 억압받고 멸시당하는 여성을 모아 여전사로 키우면서 중국 가부장 사회가 여아에게 했던 그대로 남자와 소년들은 죽임으로써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 사회에 대한 분노와 복수를 동시에 행하는 이 여인 무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여성 복수자라고 말한다. Bonnie Winsbro, *Supernatural Forces: Belief*,

서 방은 가족의 복수를 다짐하는 터전이면서 동시에 여성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미래의 더 많은 여인 무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된다. 여인무사와의 동일시로 킹스턴은 중국계 미국인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미국식 인종차별을 뒤흔드는 말을 이용해 사회적이고 인종적인 불의에 맞서 싸우는 언어의 전사, ‘말의 전사(word warrior)’가 된다.⁴⁷⁾ 이는 중국계 미국 여성으로서 킹스턴이 겪었던 영어 습득의 언어적 고통과도 관련된다.⁴⁸⁾

그 여인무사와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 고향 사람들이 우리 둘의 유사성을 빨리 깨달아서 나도 고향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공통점은 등에 새겨진 말들이다. ‘복수’라는 뜻의 관용어에는 ‘죄를 보고하다’, ‘다섯 가족에게 보고하다’가 있다. 보고를 하는 것이 곧 복수이다. 머리를 베는 것도 내장을 꺼내는 것도 아닌 말로 하는 복수이다.⁵⁶⁾

반면 「물란」에 나타난 여성 해방의 요건, 즉 돈과 방은 양성적 전략과 자아 정체성 발견을 통한 공동체와의 조화로 나타난다. 「흰 호랑이」의 신화적 화목란은 중국적 자연 친화의 가치에 입각한 무공의 획득과 남성적 칼솜씨의 수련을 중시했다면, 「물란」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주인공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차용하며 성장한다. 즉 물란은 당대의 여성적 자질⁴⁹⁾로 매파의 눈에 들어 가문의 영광을 높이려던 초기 계획이 실패하자

Difference, and Power in Contemporary Works by Ethnic Women (Amherst: Univeristy of Massachusetts Press, 1993), p.171.

47) Sangeeta Jhaharia and Mamta Beniwal, "Braving out in the Face of Constraints: The Woman Warrio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2.3 (May 2012), p.252.

48) 태혜숙,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여성의 위치에서 ‘몸으로 글쓰기’: 『여성전사』와 『덕테』를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11.1, 2003, 243쪽.

49) 매파의 눈에 들어 좋은 패필을 만나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여성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조용하고 얌전하며 우아하고 예의바르고 섬세하고 세련되며 침착한 것이다.(Quiet and demure, graceful, polite, delicate, refined, posed...) 또한 온화하고

남장을 하고 핑(Ping)이라는 이름으로 군대에 합류하는 데 터프가이의 면모를 갖추고자 과장된 남성성을 연출하면서 남성적 훈련을 견뎌낸다.⁵⁰⁾ 또 훈육과 체력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무거운 추 두 개를 매달고 기둥을 타고 올라가 화살을 회수해오는 미션에도 성공한다.

그러나 물란/핑이 생각하는 이상적 여성은 링(Ling), 야오(Yao), 치엔 포(Chien Po) 같은 전우들이 생각하는 외모가 이름답거나 남자의 힘을 숭배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나 속마음을 터놓는 여자(a girl who's got a brain, who always speaks her mind)다. 당시 순종이나 침묵으로 일관되던 여성의 미덕을 합리적 지성과 소통적 정직이라는 보편 자질로 변화시킨 것이다.

물란의 복합적인 양성적 지략은 두 번 발휘되는 데 한 번은 남장한 물란이 훈족과 정면충돌하는 설원 전투 장면에서 남성적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남은 포탄 하나를 적장을 향해 조준하라는 대장 상(Shang)의 명령을 거스르고 설산 돌출부를 향해 발사함으로써 눈사태를 일으키고 훈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힘을 발휘한 것이다. 두 번째는 죽은 줄 알았던 훈족이 다시 일어나 황궁을 공격하고 황제를 납치해갔을 때 궁벽을 넘어서는 여성적 지략 속에 나타난다. 물란은 병사들을 설득해 군장을 모두 벗고 화장과 드레스로 여장하고 훈련 때 기둥 위 화살을 수거했던 방식으로 실크 벨트를 이용해 황궁 기둥을 타고 올라가 훈족에게 황제의 첩인 양 위장하는 방식으로 궁 안에 잠입한다. 게다가 위태로운 지붕 위 산유와의 대결에서 산유의 칼을 막아낸 것은 여성들이 주로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는 종이 부채다. 물란은 흰 호랑이」장의 화목란 장수

공손하게 의무를 다하며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Fulfill your duties calmly and respectfully and reflect before you act.) 허락 없이 말해서는 안되며 남자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50) 반면 남성적 자질은 민첩함, 힘, 강인함으로 대표된다. “Be a man/ We must be swift as a coursing river/ Be a man/ With all the force of a great typhoon/ Be a man/ With all the strength of a raging fire/ Mysterious as the dark side of the moon”

와 달리 일상의 차원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전략적으로 차용해 유연하게 활용하는데 1970년대 킹스틴이 신화적 여인 무사의 자질로 삼았던 신화적 무공과 칼솜씨는 1990년대 후반 재기 넘치는 십대 소녀가 유연하게 연출하는 현실의 양성적 지략으로 변모한다.

방의 문제도 변화한다. 물란의 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란이 매파의 시험에 떨어져 낙심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고집하던 선대의 조상신의 위패를 모셔둔 사당이고 다른 하나는 훈족으로부터 황제와 황국을 구하고 돌아오는 가정이다. 첫 번째 방, 즉 사당에서 물란은 비석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며 규범이 원하는 자신과 다른 진정한 자신의 누구인지를 찾고자 한다.

날 봐... 난 절대 완벽한 신부나 딸이 될 수 없을 거야. 난 정말 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걸까? 이제 알아. 내가 진정으로 내 모습이 되려 한다면 가족을 상심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날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저 소녀는 누구지? 왜 내 그림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비추는 걸까? 어찌면 난 노력해도 내가 누구인지 숨길 수 없나봐. 내 그림자는 언제 내면의 나를 보여줄까? 내 그림자는 언제 내면의 나를 보여줄까?⁵¹⁾

소설의 화목관과 애니메이션 속 물란은 둘 다 효심에서 병약하고 노쇠한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입대하려 한다는 점과 여성이 남장한 것이 발각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⁵²⁾ 그러나 디즈니가

51) "Look at me... I will never pass for a perfect bride or a perfect daughter. Can it be I'm not meant to play this part? Now I see that if I were truly to be myself, I would break my family's heart. Who is that girl I see staring straight back at me? Why is my reflection someone I don't know. Somehow I cannot hide who I am though I've tried. When will my reflection show who I am inside? When will my reflection show who I am inside?"
<http://www.fpx.de/fp/Disney/Scripts/Mulan.html>

만든 보편 주체 물란은 이를 통해 중국 전통적 여성상에 부과된 규범을 성찰하고 그 규범의 경계를 다시 쓰려한다. 그리고 양성적 기지와 전략을 통해 적장 산유의 검과 황제의 문장이 달린 펜던트를 집으로 가져온다. 여전히 고대 중국의 전통적 가정이지만 그 가정의 의미는 변화되었다.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드높일 산유의 검과 황제의 문장보다 더 명예롭고 위대한 선물은 물란을 딸로 되찾아 가정에 다시 맞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물란을 안는다.

중국 황궁도 변모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어도 태산이 바람에 절하는 법은 없다(No matter how the wind howls, the mountain cannot bow to it)”던 황제는, 아버지의 갑옷을 훔쳐 달아나 군인으로 변장해 지휘관을 속이고 중국 군대를 불명예롭게 하고 황궁을 파손한 당대 여장남성 물란의 대역죄를 나열하지만 이 모든 시대적 제약과 규범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목숨을 살린 공과를 높이 치하하며 물란에게 절한다. 또한 황제 보좌관이라는 공직도 제안한다. “역경을 딛고 핀 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The flower that blooms in adversity is the rarest and the most beautiful of all)”는 황제의 인정은 리상이 배우자로서 파물란을 찾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물란은 결국 전통 중국과 가정의 규범이라는 가치로 돌아왔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특징상 진지한 중국적 가치가 희화화되거나 역사성이 왜곡되는 면도 있으나⁵³⁾, 집을 떠나기 전 사당에서 자아정체성을 모색할 때

52) 고대 중국의 여걸이자 여성 영웅인 파물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대하고 강인한 무사였으나 여자의 몸으로 군대에 들어갔고 그 사실이 발각되면 처형 받게 되어있다. 화자는 자신이 아무리 전 과목 A학점을 따도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고대 무사 파물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인들은 아무리 용맹스럽게 싸워도, 아무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도 여자가 무사나 학생으로 변장하면 처형당한다.” Maxine Hong Kingston, *The Woman Warrior* (New York: Everyman's Library, 2005), p.40.

53) 왕권이나 신권을 상징하며 비와 안개와 구름을 동반하는 중국의 용이 극중 도마뱀 크기의 좌천된 수호신 무슈로 재현되면서 희화화되고 작은 불을 내뿜는 것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라 할 일종의 오리엔탈

와 물란과 이 모든 모험과 역경을 딛고 되돌아 온 가정의 물란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황제도 변했고, 중국도 변했으며, 되돌아 온 물란도, 물란이 생각하는 가정과 결혼의 의미도 변화했다. 이는 디즈니사가 화목란이라는 중국 전설과 충효사상이라는 중국적 가치를 차용하면서 새로운 여성주체의 모습 변역해내면서 양성성과 크로스젠더의 요소를 가져와 미국에서 보는 보편 여성의 관점도 변화시켰다는 면에서 지배 언어의 변화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5. 나가며

문화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른 의미로 이해되고 그 정의의 모호함과 중층성은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성 속에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렇게 재구성되는 문화의 번역작업은 중립적이거나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필연적으로 윤리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문화번역에서 '경쟁하는 보편성'을 말할 때 보편성의 한계와 경계에서 그 언어적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을 재사유할 수 있다. 보편은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보편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인식가능성과 규범적 인정가능성들이 경합하는 정치적 장에 있다. 이 경쟁하는 보편성의 끝이 열린 헤게모니 투쟁은 반본질주의적 관점에서 보편성에 접근해 이것은 내부의 타자를 전제하는 동시에 그 타자를 드러내고 보편성을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의 보편성 주장이라는 '수행적 모순'을 통해 전복적 변혁을 꿈꿀 수 있다. 말할 수 없

리즘의 재현과정에서 일어나는 동양 왜곡이라고 박진숙은 지적한다. 또 훈족의 중국 침입은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데 11세기에 발명된 화약이 등장하는 점, 한겨울 설원에서 옷옷 없이 전투에 임하는 등의 묘사는 비현실성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작은 용과 어린 소녀의 긍정적 가치를 단순한 오리엔탈리즘으로 축소해 무시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된다. 박진숙,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킹스턴의 『여인무사』와 영화 『물란』에 나타난 물란의 변이」, 『현대영어영문학』 제 50권 4호 (2006, 11): 64, 72.

거나 말할 권리가 박탈된 사람에게 목소리를 준다는 수행적 모순은 주체의 시작이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윤리적 가능성을 말해준다.

울프, 킹스턴, 화목란, 물란은 서구 백인 남성 중심사회에서 여성이라는 타자들이다. 특히 킹스턴과 화목란은 중국 여성으로 중국의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 주체가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킹스턴은 중국식 결혼 대신 미국에서 학업과 직업을 택해 경제적으로 독립함으로써, 화목란은 초인적 수퍼우먼의 무공과 공력으로 전쟁터와 가정에서 영웅과 현모양처의 역할을 수용함으로써 수행적 모순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주체를 주체로 말하려 한다. 반대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성장 과정의 청소년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물란」을 통해 보편 인권의 주체인 여성의 위치는 다시 한 번 변화한다. 중국문학에서 재편된 화목란 이야기 대부분은 충효라는 거대담론을 논의하는데 반해 『여인무사』와 「물란」에서는 주인공 개인의 갈등 극복과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⁵⁴⁾ 특히 「물란」의 주인공은 정체성 탐색 과정을 통해 주어진 구문, 인정받는 장소, 일련의 문화적 관습을 새롭게 의미화하면서 변화된 주체 위치와 성 정체성의 번역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성을 보편 주체로 만드는 과정은 일련의 문화번역을 거친다. 그것은 좋은 작가의 양성 요건에서 출발하여, 봉건 질서에서 해방될 물질적 성공의 가능성으로, 또 비범한 수련으로 얻어진 남성적 무공을 거쳐, 평범한 소녀의 양성적 자아 탐색이라는 주체로 변용되면서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특수성의 관점의 기존 보편성의 근거가 되던 배제된 타자와 국지적 이상을 드러낸다. 남성성과 여성성, 충효사상과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이들 요건 각각은 그들이 처한 정치적 맥락과 더불어, 탈아적 관계성을

54) 이영숙은 킹스턴의 『여인무사』가 동양인의 공동체 이데올로기와 서양인의 개인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는 중국 봉건 공동체 이데올로기와, 유색인을 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 여성과 유색인 또한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인권을 찾아 성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영숙, 「『여인무사』의 마이너리티 담론: 젠더와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중국문화 연구』 25 (2014 8), 107.

매개로 주체 외부의 타자와의 맺는 윤리적 관계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돈과 방이라는, 각기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 여성을 해방시킬 물질적 장치는 고대 화목란 설화에서는 오랜 무공으로 얻어진 남성적 칼의 무력으로 체제를 전복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물란 에서는 남장과 여장을 전략적으로 무대화하는 소녀의 지혜와 기지로 나타나 황제의 목숨을 구하기도 한다. 물란이 남성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이상화한 여성상의 타자라면 이 타자는 문화 번역되어 그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드러내고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 물란은 주변적이고 타자적인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남성 집단 군대에 들어가려한 위장된 타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일적 보편성 속의 타자를 드러냄으로써 당대의 보편성에 내재한 타자에게 목소리를 주고 그 목소리가 문화적 규범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근대적 개인이라는 자유와 평등한 입각한 보편 주체가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시대, 지역, 인종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는 양상은 크로스젠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면에서 제 3세계뿐 아니라 제 1세계의 문화나 언어도 변화시킬 수 있다.

버틀러의 문화번역이 갖는 정치성은 ‘경쟁하는 보편성’이 무대화되는 가운데 보편성이 당대의 규범적 인식성으로 의미화될 뿐 합의된 보편성이 부재하는 정치적 헤게모니 갈등의 장이라는 데 있다. 또한 이런 보편성은 언제나 보편성에서 배제된 타자를 전제로 하는 ‘수행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대의 보편성에서 배제된 것, 특수하거나 국지적인 것을 구성적 외부로서 끌어와 보편성의 의미를 만들면서 미래의 새로운 비규범화된 보편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성과 만날 수 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대적 보편 주체로서의 여성 또한 역사적 지리적 인종적 맥락에 따라 변하므로 ‘경쟁하는 보편성’이 무대화하는 가운데 의미화되며, 특정 맥락과 접점에서 나타난 보편성은 그것에 배제된 타자성을 구성적 외부로 안고 있는 ‘수행적 모순’의 결과물이다. 국가의 주권이나 경쟁하는 집단의 권리 투쟁은 보편적 주장의 수행적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어려운데 이를 버틀러는 ‘경쟁하는 보편성’의 끝이 열린 헤게모니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반본질주의적 보편성으로 설명하며, 이것은 내부의 타자를 전제하는 동시에 그 타자를 드러내고 보편성을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수행적 모순'을 통해 윤리적이고 전복적인 변혁의 가능성을 가진다.

'번역'은 지배언어가 다룰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의 언어로 번역되고 변용될 때 그 개작 이후 의미가 같은 것으로 남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로 언어의 형상은 종속의 맥락에서 모방되고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다. 관습적 의미가 비관습적 의미로 번역될 때, 보편성의 관습적이고 배타적인 규범은 도착적 반복을 통해 보편성에 대한 비관습적 정식화를 동원하고 동시에 이전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특징을 가졌는지를 폭로할 수 있다. 문화번역은 보편성이 문화적 언어의 외부에서 말해질 수 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보편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열린 틈을 허용하는 것이고, 탈아적 관계성에 기반한 수행적 모순의 윤리적 가능성이기도 하다. 창의적 틈새를 만들어 격렬한 진동을 주는 것, 그것이 문화번역의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가능성일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5, 1~287쪽.
- 마정미. 『문화 번역』.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4, 1~124쪽.
- Butler, Judith.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Routledge: New York, 1997.
- Butler, Judith et al.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 on the Left*. London: Verso, 2000. (주디스 버틀러.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좌파에 대한 현재적 대화들』.

- 박대진, 박미선 역. 서울: 도서출판 b, 2009.)
- Butler, Judith. *Undoing Gender*. Routledge: New York, 2004.(주디스 버틀러. 『젠더 허물기』. 조현준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08.(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서울: 문학동네. 2008.)
- Butler, Judith. *Parting Ways: Jewishness and the Critique of Zionism*. New York: Columbia UP, 2012.(주디스 버틀러.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양효실 역. 서울: 시대의 창. 2016)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
- Kingston, Maxine Hong. *The Woman Warrior*. New York: Everyman's Library, 2005.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London: Grafton Books, 1987.
- Winsbro, Bonnie. *Supernatural Forces: Belief, Difference, and Power in Contemporary Works by Ethnic Women*. Amherst: Univeristy of Massachusetts Press, 1993.

2. 논문

- 김여진. 「맥싱 홍 킹스턴 『여인무사』에 나타난 마술적 리얼리즘과 중국계 하위주체 여성의 목소리 복원」. 『영어권문화연구』 5권 2호, 2012, 63~84쪽.
- 노승희. 「자전적 글쓰기의 에로티즘: 맥신 홍 킹스턴의 『여인 무사』에 나타난 모어의 시학」. 『영미문학 페미니즘』 3, 51~77쪽.
- 박미선. 「보편과 특수: 번역실천으로서 비평가론과 페미니즘」. 『문화과학』, 2008 겨울, 475~489쪽.
- 박진숙.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킹스턴의 『여인무사』와 영화 「물란」에 나타난 물란의 변이」. 『현대영어영문학』 50권 4호, 2006.11., 61~81쪽.
- 안은주. 「맥신 홍 킹스턴의 '중국'과 '미국' 재현: 다문화주의 극복을 위한 디

- 아스포라 담론의 가능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54쪽.
- 이영숙. 『『여인무사』의 마이너리티 담론: 젠더와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중국문화 연구』 25, 2014.8, 85~111쪽.
- 장정훈. 『동화와 차별화의 욕구 사이의 비결정성: 『여인 무사』와 『조이 러 클럽』』. 『영어영문학』 52.2, 2006, 245~271쪽.
- 정혜옥. 『주디스 버틀러와 문화번역의 과제』. 『비평과 이론』 20.1, 2015 봄, 141~174쪽.
- 태혜숙.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여성의 위치에서 ‘몸으로 글쓰기’: 『여성전사』와 『딕테』를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11.1, 2003, 235~255쪽.
- Butler, Judith. "Universality in Culture." *For the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m*. Ed. Joshua Cohen. Boston: Beacon, 1996.
- Cook, Rufus. "Cross-Cultural Wordplay in Maxine Hong Kingston's *China Men and The Woman Warrior*." *Melus* 22.4 (Winter 1997): pp.133-46.
- Jhajharia, Sangeeta and Mamta Beniwal. "Braving out in the Face of Constraints: The Woman Warrio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2.3 (May 2012): pp.252-5.
- Lan, Feng. "The Female Individual and the Empire: A Historicist Approach to Mulan and Kingston's *Woman Warrior*." *Comparative Literature* 55.3 (Summer, 2003): pp.229-245.
- Lloyd, Moya. "Cultural Translation." *Judith Butler*. Cambridge: Polity Press, 2007.
- Spivak, Gayatri.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 C. Nelson and L. Grossberg. Urbana: U of Illinois P, 1988. pp.271-316.
- Suciu, Andreia-Irina. "Voices and Voicing in Maxine Hong Kingston's *The Woman Warrior*." *Americana: E-journal of American Studies in Hungary* 10.1 (Spring 2014): pp.1-19.

Abstract

The Female Subject in *Mulan* through *A Room of One's Own* and *The Woman Warrior*

: the Overlapping Between Politics and Ethics in Judith Butler's Cultural Translation

Cho, Hyun-June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competing universalities' and 'constitutive contradiction' in Judith Butler's 'cultural translation'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between politics and ethics of the cultural translation in the female subject of Disney's animated feature *Mulan*(1998) through *A Room of One's Own*(1929) by Virginia Woolf and *The Woman Warrior*(1976) by Maxine Hong Kingston. For this it investigates the task of Butler's cultural translation in the various rhe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of the three texts in which the meaning and force of universal claims of human rights of women as modern subjects are made, focused on the meaning of 'money' and 'a room' that Woolf suggested as requirements of women's liberation. According to Judith Butler, no assertion of universality takes place apart from a cultural norm and no assertion can be made without at once requiring a cultural translation given the array of contesting norms that constitute the international field above all things. Without the translation of 'competing universalities', the very concept of universality cannot cross the linguistic and cultural borders it claims to be able to cross.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could be understood as a politics of translation in the service of adjudicating and composing a movement of competing and overlapping universalities. Secondly, assimilation of the particular into the universal leaves its trace,

an unassimilable remainder, which renders universality ghostly to itself. The task of cultural translation is one that necessitated precisely by the 'performative contradiction' of the ghostly particular, the spectral doubling in the universal that takes place when one with no authorization to speak within and as the universal nevertheless lays claims to the terms. For the translation to be in the service of struggling for hegemony, the dominant discourse will have to alter by virtue of claiming universalities of excluded and marginalized particular ones in the discourse, admitting the foreign vocabulary into its main lexicon, and changing the dominant discourse itself. Transformed cultural translation of 'money' and 'a room' represented in *Mulan* through *A Room of One's Own* and *The Woman Warrior* can shed light on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the politics and ethics and broaden the horizon of cultural translation in terms of 'competing universalities' and 'performative contradiction'. By creative chasms and violent shuttling, Butler's cultural translation can restage competing universalities and lead to performative re-signification and re-articulation of regulatory norms and laws. The chasm in translation can become the condition of contact with what is outside me, the vehicle for an ec-static relationality and the ethical scene where one language meets another and contact with alterity happens.

Key words : *A Room of One's Own*, *The Woman Warrior*, *Mulan*, Judith Butler,
Cultural translation, Competing Universalities, Performative Contradiction,
Ec-Static Relationality

■ 본 논문은 2016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